특별기고

정동화 박사의 아리랑 연구 3

글싣는 순서

1. 아리랑은
2. '아리랑'의 語原은
3. '아리랑'은 어떤 특성을 지닌 소리인가
4. 아리랑은 어떤 고개인가
5. 아리랑의 종류는
6. 아리랑 정신의 내용은
7. 아리랑의 멋과 특성은
8. 맺는 말

6. 아리랑 정신의 내용은

'아리랑'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으며 거기에 담겨진 정신은 무엇인가.

아리랑은 대체로 이별, 생활 고뇌, 민족의 기상, 풍년, 임그림, 기다림, 평화, 항거, 시대상 등을 울고 있는데 거기에 담겨진 밑바탕의 전신의 끈기, 슬기, 체념, 낙천, 은근, 해학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것들은 한국 문학 전반에도 잘 나타나 있으나 가장 잘 응집된 결정체가 바로 이 '아리랑'이다.

즉, 거울의 '본조 아리랑'의 대표적인 가사만 보더라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라는 가사로 돼 있다. 인간 哀歡의 감정 중 사랑하는 임을 여인네의 情恨보다 더 사무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토록 일편단심 사랑했건만 싫다고 떠나는 임이 얼마나 야속하고 붙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리요만, 그러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 억지로 붙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의 마음을 돌릴 기회를 엿보는 것이 오히려 슬기로울지 모른다. 또한 "날 버리고 가시는 임은 잡지를 마오. 갔다가 올 때가 더 반갑다네."에도 잘 나타나 있다. 겉으로는 몸부림을 치지 않고 고이 보내기는 하나 마음 속으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끈기'인 것이며, 이러한 정신은 오랜 세월동안 고난과 시련을 겪은 속에 한국인의 복성으로 체질화되었을 것이다.

'아리랑' 속의 여주인공은 이별을 슬퍼하는 단순한 여주인공이 아니라 힘없어 침략과 유린을 당하던 우리 만족이요, 이별하는 고개는 바로 우리 만족의 고난을 상징했다는 점에서 그 예술성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끈기'란 당장에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를 빨리 체념하고 언젠가 해결의 기회를 엿보는 매우 의지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인 것이다.

그리고 '은근함'이 잘 나타난 것이 '밀양 아리랑'의 다음 구절이다.

"정든 임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활짝 웃는 웃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뚝뚝한 표정도 아닌 은근한 반김이요, 수줍은 웃음인 것이다.

또한 '해학'이 잘 나타난 것은 '정선 아리랑'의 다음 구절이다.

"봄 볕이 좋아서 개울가에 갔더니, 총각 낭군 통사정에 돌베개 비었네."

남녀의 애정을 해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낙천성'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서울 아리랑'의 "풍년이 왔다네 풍년이 와요. 이 강산 삼천리에 풍년이 와요"의 구절이다. 청천 하늘의 별만큼이나 수심이 많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고 풍년과 평화를 구가함으로써 현실의 고뇌를 昇華시키는 낙천성이 넘쳐 흐르고 있다. 이와 같이 '아리랑'에서 우리 민족의 끈기와 슬기, 낙천성, 체념, 해학, 은근 등의 정신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도 끈기와 슬기, 낙천성 등은 밤만 년의 역사를 이끌어 온 원동력으로, 우리 민족의 무대가 세계화됨에 따라 더욱 치열해지는 국제적 경쟁을 이기기 위한 지름길은 이러한 정신의 계승 발전이라고 본다.

7. 아리랑의 멋과 특성은

'멋'은 개성미와 예술미, 풍류미 등이 조화된 至高美에 대한 한국인의 품격 높은 어휘이다. 아리랑의 '멋'은 고난과 시련 속에 맺힌 한을 아리랑의 가락과 해학적 내용으로 승화시키는 데 있는데, 그 중에도 아리랑 후렴구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아리 동동 쓰리쓰리 동동"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흥흥 아라리가 났네." 와 같은 조흥성과 멋들어진 변화적 반복률에 있다. 그리고 '아리랑'의 특성은 슬픔과 불행을 달랠 수 있었지만 너무 기쁠 때는 벅찬 감정을 승화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다.

8. 맺는 말

우리의 선조들은 지난날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맺힌 恨을 '아리랑 가락'으로 오늘의 문화 민족으로 성장해 왔고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10대 교역국으로 부상돼 왔다.

'아리랑'은 너와 나를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하여 한마음이 될 수 있는 민족적 응집의 최대 공약수적 노래로 조국을 통일하고 선진국이 되는 한을 '아리랑 정신'으로 앞당기고 아리랑 가락 속에 영원히 번창해야 할 것이다.

(끝)

정 동 화
前 인천교육대학 총장

韓國의 선비정신 · 27

바르게 죽을지언정 몸을 굽히며 살지는 않겠다는 정희등(鄭希登)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정희등은 정구(鄭球)의 아들이다. 아버지 정구는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문을 닫아걸고 병을 핑계대며 18년 동안이나 자리에 앉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며느리를 맞는 날 비로소 일어나 걸으니 그제야 식구들이 병든 것이 아님을 알았다고 한다.

정희등은 과거에 급제한 후 홍문관 교리가 되었으나 일찍 아내를 잃었다. 그의 사람됨을 알고 있는 당대의 세도가 김안로가 정희등을 사위로 삼고자 했으나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말했다. '차라리 홀아비로 늙어 죽을지언정 권세 있는 집안의 사위는 되지 않겠다.' 그가 지평(持平)으로 있을 때 동료 구수담(具壽聃)이 진복창(陳復昌)을 강력히 추천하였다. 진복창은 나중에 이기 정순붕과 함께 을사사화를 일으켜 어진 선비들에게 해를 입힌 인물이었다. 그 때 정희등은 이를 반대하며 말했다. 진복창은 '간사한 자들의 수괴입니다.' 그리고는 진복창이 앉았던 자리까지 걷어 불에 태우며 말했다. '간사한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을 수 없다.'

이기가 찬성으로 있을 때 정희등은 그를 강력히 탄핵하였다. 그러자 정순봉이 발끈 화를 내며 해치려 들었으나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기를 탄핵하던 날 저녁 정희등이 정순붕을 만나러 갔더니 마침 임백령이 그의 집에서 을사사화를 모의하고 있는 중이었다. 관원의 행차 소리가 들리자 정순붕이 놀라운 표정으로 정희등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이요?' '찬성 이기를 탄핵하고 오는 길이요' 순간 정순붕은 얼굴빛을 감추며 다시 물었다. 그 말을 들은 정순붕이 화를 내며 따졌다.

'이기가 찬성이 되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찬성이 된단 말이오?' 하지만 정희등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 때 안에 숨어있던 임백령이 몰래 빠져나와서 이 사실을 이기에게 알렸다. 이윽고 을사사화가 벌어지던 날 정희등은 휴가를 얻어 집에 머물고 있었다. 윤원형은 평소 그의 재주를 존중하여 사람을 시켜 몰래 편지를 보냈다. 그대와 함께 일하고 싶소. 공의 모난 성격이 문제요. 그러나 그는 편지를 찢으며 소리쳤다. '윤원형이 편지를 보낸 것은 일을 함께 도모하자는 것일 터이니 차라리 바르게 죽을지언정 몸을 굽히며 살지는 않겠다.' 이윽고 사화에 연루되었을 때 그는 세차례나 모진 고문을 받았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지고 용천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어머니가 길까지 나와 배웅하며 말했다. '네가 평생에 스스로 정직한 마음을 지니고 벗어남이 없더니 이 때문에 죄를 얻었구나! 어찌 마음에 부끄러운 바가 있겠느냐?' 하며 격려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날로 사형을 당하고 가산은 몰수되었다.

집안 사람들이 시체옆에서 통곡하고 있는데 한밤중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무명 천삼백자를 모아 주었다. 그들은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조용히 말 하였다. '우리가 누구인지 묻지 마시오' 장례를 치르는 날에는 영남의 선비 백여명이 무덤앞에 와서 울었는데 모두 이름을 말하지 않고 물러 갔다고 한다.

정희등(鄭希登) 1506년(중종1) ~ 1545(명종1)

본관은 동래, 자는 원룡(元龍), 1528년(중종23) 진사가 되고 1534년 문과에 급제, 숭문원에 들어갔는데 김안로가 사위를 삼고자 하였으나 거절하자 김안로가 앙심을 품고 있어 한직으로 전전하다가 김안로가 제거된 뒤 요직에 이르렀다.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권부에 협력하지 않아 화를 당하였다.

1568년(선조1)에 신원되어 이조판서로 추증되고 적몰된 가산도 돌려 받고 의민(毅愍)의 시호도 받았다. 을사명현으로 추앙.

자유기고

포천출신 소설가 이해조 탐구

대중적 소설을 모색하다 – <구의산>

정 흉 모 대진대 국문학과 교수

1. <구의산>은 매일신보에 1911.6.22-9.28까지 연재되었으며 1912년에 신구서림에서 출간되었다. "구의산에 구름 쌓이듯 한 의심이 환연히 해석되어 차례로 판결을 할 터인데…"라고 한 데서 보듯, 이 작품의 제목은 의문의 사건이 풀려나가는 과정을 서술한 작품의 진행에서 따온 듯하다. 당대에 유행하던 '공안(公案) 모티프'·'송사(訟事) 모티프'를 차용하여 대중들의 눈길을 끌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구의산>의 핵심내용인 '계모의 악행과 그에 따른 고난, 그리고 해결' 구조는 전래 설화와 고소설에서도 자주 보이는 모티프로서 설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던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를 맞이하자 계모는 그를 학대했다. 계모는 그를 장가가는 날 죽이기로 하고, 매수한 종에게 신방에 든 의붓아들의 목을 베어 오라고 했다. 종은 신부집으로 가서 신랑의 목을 베어 가지고 왔다. 신부는 남장을 하고 신랑집 근처로 가서 조사하여 범인이 계모임을 밝히고 시아버지께 알려 누명을 벗었다. 시아버지는 계모를 죽인 다음 유랑의 길을 떠났다. 신부는 신랑의 목을 시신과 함께 장사지내고 유복자를 낳아 길렀다. 신부는 장성한 아들의 노력으로 시아버지를 찾아 모시고 잘 살았다.

첫날밤에 종이 신부집으로 가서 몰래 신랑을 불러낸 다음, 가는 도중에 죽인 다른 남자의 시체를 신방에 넣어두고 돌아와 계모에게 거짓으로 말하고 신랑과 함께 멀리 도망가 숨어 살다가 마지막에 온 가족이 모여 행복하게 사는 내용으로 변형된 이야기도 있다. 이해조의 신소설 <구의산>은 변형된 설화의 구조와 같으며, <조생원전>과 <김씨열행록>이라는 고소설은 첫날밤에 신랑은 죽인 설화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구의산>은 이야기의 구조와 소재면에서 전래설화와 고소설의 그것과 비슷한 점이 많으며 표현방식에서도 유사점이 많다. 예컨대 작품의 후반부에 나오는 법정 장면에서, 신부인 애중이가 남편 오복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 남편은 왼편 겨드랑 밑에 녹두 같은 무사마귀 두개가 나란히 있으니, 당장 웃옷을 벗기고 조사해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하는 부분 같은 것들이다. 조선후기의 고소설에서 첫날밤을 보내고 전란 등으로 헤어진 부부가 우여곡절을 거쳐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회할 때, 서로의 신체적 특징(엉덩이에 점이 있다거나 어깨에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있다는 등)을 기억하여 만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비유나 소재의 참신성 등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해조의 소설이 전통문학의 일정 측면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소재나 비유의 참신성은 결국 독자들의 생활·문화 환경이 참신해져야 가능하기 마련인데, 작가의 선도적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해도 1912년이라는 시간적 공간은 아직도 구시대적 문화가 압도적이라 할 수 있겠다.

2. 그러나 구도와 소재, 표현방식 등에서 고소설의 문법을 다수 차용하게 된 것은 이해조의 초기 신소설이 이룩했던 문학적 성과에서 일정부분 후퇴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본 기자가 십여 년 광음을 소설에 종사할새 구소설의 부패한 언론이 지금 이십세기 시대에 맞지 아님을 깨닫고 … 신소설 체재를 발명하야 이미 이삼십 종의 소설을 저술한 바 … 독자 제군만 그러실 뿐만 아니라 저술자도 … 지리한 생각을 금치 못하니 … 소설 체재를 또한번 변하되 신구를 참작하야 구소설의 허탄맹랑함은 버리고 … 신소설의 친근각삭함은 바리고 … 소양정이라난 소설을 저술하노니(매일신보. 1911.9.29).

이를테면 이해조는 '소재의 고갈'과 '창작의식(문제의식)의 무뎌짐'을 느낀 것이다. 이것은 국치 이후 이해조가 매일신보의 기자로 들어간 다음에 매일신보에 연재한 작품 목록을 통해서 그 원인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이해조는 1910년 10월 12일 〈화세계〉 연재를 시작한 이후 거의 쉼 없이 소설을 창작했다. 매일신보 문예면의 소설파트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내용과 소재, 형식을 실험하기는 어려운 일이었고, 작품의 완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1911년 이후 고소설의 번안이나 개작소설이 많아지는 것과 '이인직 류의 신소설'로 후퇴하는 경향이 드러나는 사실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애국계몽기의 소설에 나타났던 긴장이 사라진 셈인데, 주권상실로 인한 좌절감이나 지속적인 의식의 긴장을 못 이긴 일종의 피로감, 현실과 타협 등등의 이유도 작용했을 터이다.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달라진 사회정세에서 과거 방식의 계몽주의가 맞지 않음을 느끼고 좀더 대중적인 문학(소설)을 써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품 경향을 전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식민지 시대에 창작된 이해조 소설의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소리 공연으로 삶의 희망 메시지 전달

전문악사 연주와 함께 하는 공연위해 지원 필요

포천시 문화예술봉사단 ①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 지부장 박 영 실

2005년4월 결성돼 포천지역에서 문화예술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포천시 문화예술봉사단의 진면목을 각 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표와 인터뷰를 통해 보도함으로써 서로 돕고 사는 포천사회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우리가락의 아름다운 선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원하는 분들을 찾아서 공연에 나서고 있다." 2004년3월16일 창립하여 30여명의 회원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 박영실(사진) 지부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보유자 묵계월) 이수자다.

서울·경기지방의 소리인 경기소리는 노래의 느낌이 대체로 맑고 경쾌하며 말붙임새가 독특하고 선율의 굴곡이 유연하면서도 장식음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공감대의 형성이 빠르다는 점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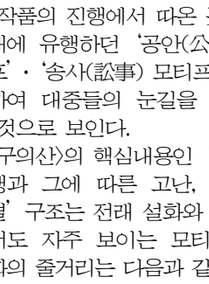
박 지부장은 지난해4월 결성된 포천시 문화예술봉사단 창립 단체로서 등록하여 독거노인을 위한 팔순잔치, 소망의 집 방문공연, 할렐루야 기도원 사랑의 집 위문공연,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공연, 현충일 참전용사를 위한 추모공연, 노인대학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사지를 쓰지 못하고 누워서 소리공연을 접하면서 함께 따라 부르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더 많은 공연으로 봉사를 다짐하기도 했다고 한다.

박 지부장은 "공연을 하다가도 이들의 반응에 감동을 받아 손을 잡아주며 위로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며 "이같은 무대를 좀더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국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들에게도 전문악사의 연주에 맞춰 소리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박 지부장은 올해도 많은 봉사공연에 나설 계획이며 공연이 필요한 단체나 소외된 이웃들의 공연요청을 기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162)

포천의 愛唱曲(애창곡)

중국의 오뚝이였던 등소평은 '러브 미 텐더', 장쩌민 주석도 '러브 미 텐더',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는 '마이웨이', 스카루노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은 프랑크시나트라의 '마이웨이', 동티무르의 구스모아 대통령은 '머라이어 케리'의 히어로우(영웅)을 애창하였다고 하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선구자'. 노태우 대통령은 '베싸메 무쵸'가 애창곡이였다고 하며 박정희 대통령은 '동백 아가씨', '낙화유수', '짝사랑'을 애창하였는가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김삿갓'을 백담사 유배 시절에 애창하였다고 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정표', '작은 여인들', '타는 목마름으로', '아침이슬', '허공', '부산 갈매기'가 애창곡인데 '꼽사등이 춤' 솜씨가 일품이라고 한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초대 국회의장을 지낸 신익희 선생이나 내무장관 조병옥 박사는 '메기의 추억'을 애창하였는데 장택상 외무장관도 함께 애창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 고향 포천 출신들은 어떤 노래들을 애창하였을까? 궁금하지 않은가?

포천의 2대 국회의원이자 교통부장관을 역임한 윤성순 박사는 '학도가'와 '메기의추억'을 즐겨 불렀다고 하며 이한동 전 총리이자 내 고향 포천의 오랫동안 의원 생활을 한 분은 재학시절 '미완성 교향곡(봉선화의 가사를 개작한 노래)'를 미소를 지으며 결혼 피로연에서 축가를 잘 불렀으며 강렬한 리듬의 '맘보 바캬'는 매우 인기가 높았다.

의정생활이나 총리 장관시절에는 어떤 노래를 애창하였는지 알 길이 없다. 포천의 유지들은 '4H의 노래'나 '농민의 노래'를 애창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시조 타령'을 잘 부르는 노인들이 많았으며 '시조'를 '자작시'로 지어 시회 모임의 흥을 돋구는 모습을 자주 보아 왔다.

요즈음 동창회에서는 모교의 교가를 몰라 교가를 부르지 않으며, 군(시)민회 모임에서도 '포천군민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왜 그런지 슬퍼진다. 표천문화원 행사에는 '포천문화의 노래' 포천시민의 날이나 군(시)민 행사에는 언제 어디서나 '포천군(시)민의 노래'가 힘차고 아름답게 불려져야 한다.

102개 인종이 모여 산다는 미합중국 군인들은 교향이 생각나면 '미국국가'나 '주가'를 부른다고 한다.

내 고향 포천사람들도 농민이 모이면 '농민의 노래'를 부르고 '4H의 노래'도 불러야하지 않을까? '편암 추모의 노래'. '유응부 충신의 노래'. '오백주 효자의 노래', '오리마을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 어떨까?

'독수리 유격대의 노래', '조경선생의 노래', '하늘 못 산정호수의 노래'는 어떨까?

고향사랑의 노래가 울려퍼지는 내 고향 포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寒食節風光

(한식절풍광)

陽春好節越山東(양춘호절월산동)
양춘호절은 산동으로 이미 지나가고

草木生成雨降中(초목생성우강중)
초목은 비가 내린 가운데 생성하는구나

寒食植茅朝霧白(한식식모조무백)
한식때 산소에 띠를 심는데 아침안개 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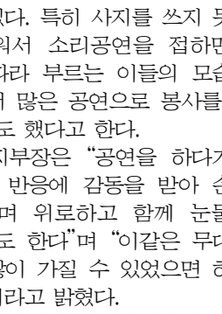
淸明省墓暮霞紅(청명성묘모하홍)
청명에 성묘하는데 저녁노을 붉구나

野田農者忙耕種(야전농자망경종)
야전에서 농부는 바쁘게 경종하는데

學塾儒人默咏風(학숙유인묵영풍)
학숙의 유인은 풍월을 묵영하도다

滿發梅鵲群鳥啭(만발매견군조롱)
매화와 진달래 만발하고 새들은 지저귀고

今年庶事祝亨通(금년서사축형통)
금년의 만사가 형통되기를 빌도다



박 동 규
??

초대 詩

다랑지 논

핏빛
단풍
서러운
바람을 타고

다랭이에 뒹굴며
한 기를 토하는데
날짐승은
반갑게 찾아 드네
상처 진 논바닥

이마에 주름처럼
고통스런
사색을 하고
열린 하늘
지나는 구름은
얼굴 없어도
웃네

유 봉 규
이담문학회 회원
세월을 낚으며 외5권